

월간 **중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2** 월호



주교 교육의 중요성

교회의 부흥성장은 주교 교육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심령부흥회 등의 집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교회봉사와 이웃구제, 그리고 전도활동을 펼치는 것으로만 착각해서 주교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성장은 주교교육의 완전화 내지는 구체화가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이유에서 「주교교육」이 교회내에서의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다 하는 일인만큼 우리도 형식적으로 「주교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릇된 논리가 앞세워져서는 안되겠다.

어린 영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학생의 신분으로 성경공부 하는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 해야 하며, 가르치는 자도 피땀 어린 연구와 기도로 준비하여 피교육자를 상대하며 교수해야 하겠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주교교육이 매우 활발했다.

오히려 일반 사회학교보다도 「주교교육」이 차지하는 입장이 우월해, 세속인들도 교회내의 주일학교 교육에 자녀를 보내는 일에 인색치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교교육이 상당한 수준에도 달했음에도 세상교육 여건보다 모든 면에 뒤떨어진 처지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시설면은 말할 것도 없고, 교재, 시청각자료, 교육환경,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질적 우수성이 세상교육 교사보다 뒤떨어져 있어 가르침

을 받는 피교육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우리 교회는 교육위원회 산하에 16부 주일학교가 있다.

각 부마다 지도교역자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교과과정에 의거 매주 주일 주일학교를 운영하며, 성경교육과 신자의 기본적인 생활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일년에 두번씩의 계절학교를 열어 평상시의 부족했던 주교교육의 일부를 보충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주교교육」이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교육설정의 정상패도를 이탈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재검토할 시간적 여유나, 연구없이 틀에 박힌 재래식 주교교육이 되지 않나 의심이 간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의 빠른 보충, 교재의 혁신, 교수의 완성화,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밀착된 상담, 집념어린 기도의 생활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의 교회뿐 아니라 아세아 및 세계속의 교회로써 성경에 입각한 개혁신의 교회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엔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성령충만 받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병행되어서 믿음의 성장은 물론 겸손과 승리의 보장(고전10:13)이 되는 신앙생활이 주교교육에서 찾아야 될 때가 왔다고 본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 1982년도 교회성구 * (시편 118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찌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와 내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여호와께서 내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찌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와 의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중에서)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임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0권 제2호 · 통권 96호

월간 총현

The Monthly Chung Hyeon

1982년 2월호 차례

권 두 연	주교 교육의 중요성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경전을 연습합시다		김정인	· 4

□ 특집 / 1982년도 총현교회 주일학교 교육 □

· 1982년도 각 부의 교육목표		편집실	· 6
· 주교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위원회	· 8
· 주교 교육과 구름성경공부		이승근	· 9

이월의시	化肉		고정희	· 25
연재칼럼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		이건숙	· 23
편집실칼럼	바쁜일 · 중요한 일		이형수	· 16
물맷돌	피아노 연습과 영적상태		편집실	· 16
찬송가감상	내 진정 사모하는(새 110장)		김하진	· 17
책소개	성경 해독법		김경신	· 17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① *

·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이충운	· 18
--------------	-------	-----	------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을 위한 특별기획 ②)

·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1)		왕은순	· 12
---------------------	-------	-----	------

(김창인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②)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김정인	· 24
---------------------	-------	-----	------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④)

· 칼빈주의 교회관		김하진	· 26
------------	-------	-----	------

기관소개	주일학교 · 영아부		편집실	· 29
------	------------	-------	-----	------

선교사 · 선교지소식		30	교계소식		33
1월종교운동정		32	교회소식		34
1월의행사		38	편집하교나서		38

표지설명 / 1982년도 겨울 계절학교가 시작됐다. 매년 겨울·여름으로 주일학교는 큰 행사를 치루며 학생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도 10개 주일학교에서 3,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은 초등부의 겨울어린이·성경학교의 한 장면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이달의 말씀 □

경건을 연습합시다

〈딤후 4 : 1 - 1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 (딤후 4 : 6~10)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경건을 연습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연습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연습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된 과정에 따라 실험실습을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습을 계획성있게 법대로 잘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발달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기술은 숙련되고, 정신은 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습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세상이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기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지구덩어리에 5억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매년 5천만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통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굶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얻어 먹으려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생활을 정당하게 잘하며 절제하여 남겨서 남까지 도울 줄 아는 인격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둘째,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여러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훈련을 안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사람, 싸우기는 싸웠으나 재산과 자유를 빼앗기고 수많은 생명이 유린당하는 패배하여 비참해진 사람, 또 잘 싸워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하면 영광스럽습니다. 재산이 보전되며 자유를 누리며 민족이 번영합니다. 이렇게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전쟁을 예견한 훈련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정하고 연습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연습을 하든지 바른 목적을 정하고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바른 생활을 위해, 내 나라의 명예를 위해 연습하는 것도 좋으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연습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되고 십자가의 복음은 빛이 나서 영혼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습의 목적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귀한 연습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연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 : 27)고 하였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자를 돌보아주고 자신이 죄에서 물들지 않도록 파수하는 생활입니다.

경건에 속한 연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경건이 자라며 유지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워도 기도하지 않아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하거나 마칠 때에도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경건이 무너집니다.

셋째, 전도하는 연습입니다.

네째, 헌금 바치는 연습입니다.

헌금을 바로 바칠 때에 우리에게 몇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돈을 써야 할 곳에 바로 쓰면 쓰지 아니할 곳에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돈을 옳은 데 쓰면 마음에 전전한 생각을 하도록 하여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므로 성공자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칠 것을 바치고 절제할 줄 아는 연습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다섯째, 봉사하며 축복의 말을 하는 연습입니다.

여섯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땅위에서 얼마를 살 지 모릅니다. 오늘의 것을 내일, 나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연기하거나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경건을 연습하는 자의 태도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자의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나의 실력은 부족하고 방해꾼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지혜를 구하여 내가 경건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매어 달려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정성 전부를 쏟아서, 실력 전부를 쏟아서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인내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경건을 연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땀흘리며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영혼을 전도하며 약자를 돌보아주며 남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주교 각부의 교육목표

□ 어린이새신자부

● 교육목표

어린이새신자부는 5주 교육후 6주째 등반한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6주뿐이고 모든 행사도 6주를 주기로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6주간의 교육목표가 되는데 「우리는 다 적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에 교육목표를 두었다.

● 실행계획

1. 처음 나온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2. 처음 온 어린이에게 족복음을 주어 매일 조금씩 읽게 한다.
3. 주기도문 카드를 주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며 기도를 하도록 지도한다.
4. 자기와 같이 교회에 친구를 데려오도록 지도한다.
5. 분반공부를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한다. (교제-기독교교육연구원 발행, 신입부공부, 임승원저)

(지도/김은숙전도사)

□ 영아부

● 교육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빌 4 : 8~13)

□ 유치부

● 교육목표

성령충만한 유치부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유치부가 되도록 한다.

□ 유년부

● 교육목표

1. 참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2. 출석을 잘 하는 어린이
3. 말씀, 기도, 전도에 모범된 어린이

□ 초등부

● 교육목표

1. 초등부는 1982년 교육목표를 「성령충만 받아 성장하는 초등부가 되자」고 정하였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이라야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즉 천국일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1982년도 「충현교회 교육위원회」 교육목표가 「신앙의 생활화」이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말씀」 「찬송」 「전도」 「성도교제」의 생활화를 다음과 같이 실천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이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초등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을 참된 천국일군으로 양성하려고 한다.

● 실행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에 능하고,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열매 맺으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운다.

(지도/이양우강도사)

□ 중등부

● 교육목표

그래서 1982년도 교육목표는 1. 하나님에게 영광돌리는 생활. 2.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3. 성령의 열매맺는 생활로 하였다.

본 중등부에서는 반 편성을 구역별로 구성하고 각 반에 구역장과 권찰을 임명하여 담임 선생의 지도하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정규 예배와 성경공부, 정규 집회 시간을 통하여 지, 정, 의의 조화된 신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속의 신앙인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도/이원길전도사)

□ 고등부

● 교육목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데 목표를 둔다.

□ 대학부

● 교육목표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

1. 기도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
3.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 실행계획

1. 신입반 운영
2. 양육반 운영(교사가 전담)
3. 성장반 운영(조장 중심)
4. 각 소Group을 통한 봉사기회(성경공부반 개인양육 전도팀)

(지도/허충욱목사)

□ 청년부

● 교육목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자.

(엡 4 : 13)

● 실행계획

개인 경건의 시간, 주일 오후 성경강의, 반별성경공부, 부흥회, 수양회, 특강, 노방전도, 유치장 전도, 병원전도, 철야기도회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 생활, 사역을 깨닫게 하고 체험케 한다.

(지도 / 이승근목사)

□ 장년새신자 1 부

● 교육목표

유모가 어린애를 돌보는 심정으로 그들의 사정을 세심히 살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적절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새신자의 지도원리라 생각되어 진다.

이에 우리 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교육목표를 세웠다.

● 실행계획

첫째 말씀을 읽도록 교육한다. 매주 과제지를 주므로 말씀을 읽으며 배운 것을 복습하도록 한다. 단원별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여 성경퀴즈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둘째로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 매주 강의에 참석해 말씀을 듣도록 교사님들은 한 성도, 성도의 안부를 묻고 주일에 교회나와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다. 또한 신앙간증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므로 새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피차 유익을 가져 오게 한다.

셋째로는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훈련한다. 십계명 외우기대회,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가져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도록 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 영으로 찬양하는 생활을 일깨워 준다. 반별로 신앙토론회를 가져 새로 믿었을 때 부딪혔던 어려운 문제를 서로 나눈 후 담당교역자나 선생님께서 답해주므로 신앙의 난해한 점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생활로의 정진을 위한 모임도 주관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

리는 선생님들의 모임으로 교사특강과 기도회, 학생·교사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우리 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기의 이를 위하여 하지 않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려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새로 믿기로 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저희 부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로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새신자부로 안내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도 / 구명신전도사)

□ 장년새신자 2 부

● 교육목표

1. 성경을 바로 배우는 학생
2.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자
3.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전도자
4. 충성스러운 일군으로 양성

□ 장년부

● 교육목표

1. 말씀의 교육
2. 봉사의 생활화
3. 전도의 실천

□ 노년부

● 교육목표

1. 천국(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2.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인도하려고 한다.
3.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사는 여생이 되도록 인도하려고 한다.
4. 후손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축복”만 하며 사는 여생이 되도록 인도하려고 한다.
5. 남은 전 생애가 “기도화”(祈禱化) 되도록 인도하려고 한다.

(지도 / 김창근목사)

□ 산업전도교육부

● 교육목표

1. 하나님 중심생활
2. 교회 중심생활
3. 말씀 중심생활
4. 복음 중심생활
5. 성실한 직장인으로 육성한다.

● 실행계획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 청소년들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으로는 말씀을 생활화하는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한 그리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전도인으로 육성시키고 그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직장을 복음화시키며 민족복음화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평신도 직장 선교사로 육성시키고 있다. 매

월 학생특강과 매주 토요집회를 통해 청지기 사명을 고취시키고 매주 일 주일에배와 철야기도로 또 심령부흥회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며 매주일 전도실시로 전도를 생활화 하고 있다.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대상으로 교육하며 새신자만 6주과정이 있고 등반후 3년을 주기로 교과과정에 의해 교육하며 그외에 인격 교육과 생활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지도 / 박동실목사)

□ 선교부

● 교육목표

1. 본 선교부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자”는 표어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서 선교에 관한 교육 및 전도, 봉사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즉 선교부의 교육목표는 ①비전을 심는 교육 ②실력을 갖추는 교육 ③전도에 힘쓰는 교육 ④자료화의 결실을 맺는 교육이며 이 교회의 열매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 그리고 본 선교부는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선교 요원들을 계속 훈련 훈련시키고 있으며 충헌성도들은 적어도 일정기간(3년이상)동안 반드시 참여하여 선교에 관한 제반 경험을 갖추므로써 실제적인 선교요원들이 되도록 함을 근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82년도에는 특히 전체 선교 부원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회의 선교방향을 보필하고 또한 선교에 관해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줄 것”이 있는 실력있는 “선교

정예대원”이 되도록 힘차게 양성함

● 실행계획

1. 지도교역자의 방침 ①수업의 충실 및 자료화 ②교사의 선교자질 배양 ③각 반의 성공적운영 ④면례 회 발전 및 소그룹(선교·셀 Missi cell)양성 ⑤연구 및 실천적 선교 훈련강화(제4회 선교훈련등)를 추진하며

2. 열심있는 기도 및 후원기도의 도움을 받아 기도운동이 쉬지 않게 하며 (정기 철야기도·기타 각종기도회 및 기도후원자들의 확보)

3. 오직 믿음의 분위기를 지키므로써 근심·염려·위로 물러서는

소극적태도를 깨뜨리고 전진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지도/오지용목사)

□ 새가정부

● 교육목표

1.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며

2. 모든 가족이 스스로 성경연구를 하도록 하며

3. 모든 부모가 교회, 가정, 사회생활에 충실 하도록 지도한다.

* 교육목표 및 실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연초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내용을 참조함 (편집자)

주교 행정 실무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며, 세계를 향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천국일꾼 양성”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교회의 5대목표중의 하나로 기도하며 실행해 오고 있다. 천국일꾼을 키우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서 주일학교 행정은 맡겨진 일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주일학교 교육행정의 일반적인 기능에는 관리적인 기능과 지도적인 기능이 있는데 전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 부서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각 부서의 각 개인 또는 부서내의 분담된 일의 목적과 각 부서 자체의 목적이 일치하도록 하는 지도적인 역할을 말한다.

주일학교 행정의 역할은 조직, 계획, 통제, 평가등의 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들은 미래를 향한 교육계획의 한 과정이 되어야 하겠다.

주일학교 행정은 교육과정 관리와 인사, 행사, 재정 및 사무관리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상에서 말한 몇개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일학교 교육행정의 실무자는 항상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로 각자가 속한 부서의 교육과정, 교재 및 보조교재, 학습시설, 교육평가 방법, 교사의 임면, 교사의 교육훈련, 학생의 생활지도, 새신자 관리 및 심방, 면려회 및 성가대 관리, 대내외 행사, 구제, 위문, 친교, 포상, 수입과 지출, 각종 기록, 통신, 매품, 회의, 석사와 간식

등의 목적이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조직, 기획, 통제, 평가하여 내일을 위한 자료로 간직함이 옳은 줄 안다. 결코 즉흥적이며 전시 효과적인 기획이나 행사 단면적인 결과의 평가와 소속된 부서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치밀한 사전의 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는 사업 효과를 크게 할 것이다.

사업계획은 반드시 모임을 통하여 부서내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종합한 후에 사업항목을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교회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교사들에 대한 주교 행정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으므로 지도자 양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교행정 교육시간을 활용하거나 각 부서의 부·처장단은 과장 또는 교사들에게 실무를 통한 교육을 반복 하므로써 다음해 교사 이동서와 부처장단의 윤고시에 각 부서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끝으로 각 부서는 교회 방침에의 올바른 이해와 신속하고도 정확한 자료제출이 주일학교 행정의 목표를 이루는 한 방편이라 생각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주일학교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행정 실무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봉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그동안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던 성경공부운동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교회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에서마다 성경공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6.25 이후 전국 교회마다 부흥회 일련의 집회가 점차로 성경공부 내지는 성경회 형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부흥회와 대형집회들을 통해 교인의 수는 성장하였으나 성도들의 생활이 뒤따르지 못하여 불신자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성경지식의 무지로 인해 신비주의·교권주의·사회복음주의·형식주의·외식주의에 휩쓸려 교회들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사실이며 이들 교육에 어려

움을 겪고있음도 사실이다. 이런 것을 틈타 이단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이단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모임에 몰려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최근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음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간 목사님의 설교나 부흥회 수양회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루 세끼 밥먹듯이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등 듣고난 후 결심하면서 시작은 하지만 끝송이보다 더 달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며칠 못가 수면제가 되고 또 세상일에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읽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죄책감만 더

- 그룹성경공부와 주교교육 -

일방적인 주입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승 근 목사

(청년부지도)

하게 되며 그나마 몇몇 성도들만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그들의 영적상태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성경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 속의 말씀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눌때 더욱 맛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완전한 방법은 못되지만 성경공부의 형태와, 특별히 소그룹 성경공부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몇년간의 소그룹을 인도해본 경험에 입각해서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성경공부의 형태

1) 조직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주제별로 뽑아 연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인물, 사건, 교회... 등을 모두 뽑아 조직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역역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성경공부하려는 사람이 알기 원하는 주제부터 출발해서 성경안에서 답을 얻으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초신자들을 위한 교리공부용으로 좋으나 교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학, 신앙, 경험, 지식의 범위안에 제한시켜 강의하기 때문에 잘못 흘러갈 위험이 있고 또 이단들은 자기비들에게 유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단교리의 내용에 성

경의 내용을 갖다 붙임으로 이단들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교과로는 거의가 외국인이 쓴 것을 번역한 것으로 CCC, 네비게이토, 죠이, IVF, 주제별성경연구등이 거의 이 방법에 의해 쓰여진 교재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부 학습반에서 26주용교재로 강의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회공부를 펼쳐 하고 그위에 신앙의 뼈대가 세워져야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단사설에도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2) 주경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성경신학적 방법이라

고도 하며 귀납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본문을 한결 한결씩 해석하면서 연구하는 것인데 어학, 문법, 역사, 고고학, 문화, 문학...등 다방면의 실력을 갖추어야 연구해 나갈 수 있다. 이 연구 방법은 신학교에 다니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가능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이나 성경사전등을 참고하면서 연구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성경연구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어느 신학적 입장에서 그 구절을 보았느냐에 따라 주석이 달라지는 수가 많으므로 주석을 선택할 때 교역자에게 물어서 건전한 것을 택해야 한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주석은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쓰신 것으로 성경66권 모두 주석이 되어있다. 성경외에 필히 구독해서도 좋은 책이므로 추천한다. 이 성경연구 방법은 비교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교재는 UBF, SBF에서 발행한 것이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강해집은 거의가 이 방법에 의해 집필되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방법으로 성경을 강해하고 있다.

3) 역사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이 방법은 기독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요즘은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루터교에서 나온 "뵐엘 성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교재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이 방법은 성도들에게 성경전체를 객관적으로 이해 경림시켜주며 또 이 기간에 성경을 많이 읽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뵐엘성서의 큰 장점은 성경각을 이용해서 성경을 교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의로만 끝나야 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나누는 점이 약하고 생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얼마전 후련의 강의를 나눔으로 보충하게 됨

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재생산하여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힘들다.

4) 실천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성경내용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당면한 문제부터 출발하여 성경으로 답을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담학, 예배학, 심리학, 찬송가학, 설교학...등으로부터 문제를 인출해내서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그리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뵐엘 성서의 후편, 새생원 세미나, 위기상담, 네비게이트에서 나온 '둘이 한 몸을 이룰찌니라' 등의 교재등이 나와 있다. 이런 교재들을 실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생동감과 현실감은 있으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위험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성경공부 방법중에 주경신학적인 연구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연구해서 주석으로 삼아야 하며 나머지는 특식 또는 간식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밖에 성경연구법으로는 성경개론, 각권별 성경연구법이 있고 특별히 추천할 만한 교재는 차트를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로 켈렌의 성경연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와 교리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각 교단에서 나름대로 주일학교공과들이 출판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가 강의식, 주입식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앞으로 어린이용 교재를 집필할 경우 시청각 교재를 필히 제작해야 하며 중등부 이상에게는 토론식, 대화식, 문답식 방법을 이용한 교재를 집필해서 학생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와서 교사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공부 교재는 대부분이 외국 교재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양상과는 다른 면이 많이

있고 또 요즘 번역되고 있는 많은 책들중 상당수가 세대주의적인 색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없이 도입하여 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용어와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성경을 멀리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빨리 현대적 용어로 쓰여진 성경이 출판되어야 하며 누구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석류가 많이 나와야 하겠다.

2. 성경공부의 방법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개인이 하는 방법 일대 일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성경 공부등의 방법이 있다.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제일 중요한 방법은 각자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구를 암기하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주신 것은 육적인 양식은 물론 영적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개발해야 할 소그룹 성경공부(3~8명정도)에 대해 잠시 고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그룹 성경공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장소 제한으로 인해 할 수 없이 나누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룹 성경공부의 참 뜻은 함께 생각하고 각자의 깨달음을 발표하여 말씀의 맥을 함께 짚는 것이지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며 강사나 교사는 없고 오직 인도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한다.

1) 소그룹 성경공부의 유익

- ① 설교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
- ② 구체적인 생활적응에 있어서 주

입식 강의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자신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타인을 통해 깨닫게 된다.

④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의 신앙생활을 본받게 됨으로 신앙성장이 빠르게 된다.

⑤ 말씀을 통해 교회봉사의 바른 지침을 갖게 된다.

⑥ 형식적인 예배를 생동감있게 만들어 준다.

⑦ 말씀연구에 전체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⑧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⑨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이다.

2) 소그룹 성경공부의 실제

① 사전에 준비할 것.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그룹의 진행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인도자는 회원 각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회원구성

가급적이면 동성으로 하되 조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③ 장소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소음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하되 넓은 장소보다는 회원수에 알맞는 공간이 좋으며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이 분위기를 좋게 끝나가게 하는 데 제일 좋다.

④ 좌석

인도자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앉는 것이 좋다.

⑤ 시간

한 명이 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야 한다. 그때야 다음번 모임에 정시에 오려고 노력한다. 인도자가 사전에 확인 전화나 엽서로 연락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공부시간은 대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1주일에 한번이 바람직하다.

⑥ 시작

시작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시119:18, 73) 기도가 길어지면 마음이 흩어지기 쉽다.

⑦ 성경본문 읽기

한 사람이 전부 읽거나 교독을 하거나 한 사람이 몇절씩 읽는 것은 좋으나 한 사람이 한권씩 읽게 되면 자기가 읽는 구절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문장의 대의를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⑧ 본문 해설

회원중 누구에게 내용을 말하도록 하거나 인도자가 먼저 칩게 풀어준다.

⑨ 진행

인도자는 전 회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이끌고 가야 하며 완전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한 문제 매달려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후에 다시 다룰 연구과제로 남기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 주제를 벗어나고 있을 때는 빨리 파악해서 정도를 길도록 지혜롭게 인도해야 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요점을 요약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성경의 난제가 다루어질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집에서 각자가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하거나 유능한 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다.

⑩ 끝날 때

성경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간내에 끝나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번 기회에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요점을 요약하도록 하되 인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며 그날 공부의 제목과 연결시키도록 한다.

인도자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원 스스로 성경안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어간다.

⑪ 끝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혹 늦게 시작을 했어도 정시에 끝나야 한다.

⑫ 인도자가 알아야 할 것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참석자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주고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차별은 절대금물이다.

인도자가 아무리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도 모든 질문마다 모두 답할 수는 없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인도자도 회원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재나, 교수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도자의 인격임을 알아야 한다. 회원은 자연히 닮아가게 되어 있다.

강의자가 아니라 인도자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인도자까지도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한다.

성경지식의 전달보다 회원의 인격변화와 생활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⑬ 결론

성경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 보다 잘 알리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는 데 있다.

아직 그룹 성경공부 훈련이 안된 경우에 시작을 하게 되면 마치 신병훈련소와 같이 모든 것이 어설픈기만하다. 그러므로 끝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음 시도하는 그룹에서는 그룹공부를 위해 집필된 교재를 사용해서 훈련받는 것이 좋다.

대학부와 청년부만이 아니라 국민학생과 장년들에게도 이 방법은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 (*)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 (1)

양 은 순 집사

우리들의 가정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랍고 값진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행운의 일곱가지 열쇠로 우리들의 방문을 함께 열어 보기로 해요.

1 첫째 열쇠 - 영적성숙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미숙한가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연령이나 지식수준, 경험이나 지위, 경제사정등을 들 수 있겠지만 그중 저는 이기심이라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성숙과 꼭 반비례가 되니까 측정하기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간이 제일 이기적인 때는 애기때예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이 제일 미숙하죠. 애기는 뱃속에서 엄마의 건강상태라든지 우리 집의 경제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악착같이 엄마에게 있는 양분을 섭취하죠.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았다고 낳자마자 '엄마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는 아기가 있나요? 오히려 달라는 것으로 가득하여 울기만 하죠. 이 아기가 점점 자라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게 되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아기의 성숙을 느끼게 되지요, 이제 다 자랐

구나 할 만큼 성숙해지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자랐다고 인정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극동방송을 통하여 가정문제 상담을 해 왔는데 크리스찬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펍 놀랐어요. 요인이야 다 있겠지만 분석해 보면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이기심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월터 트로비쉬는 그리스도인의 이혼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반으로 자르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왜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다 성숙했는지 모르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결혼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세상 최초의 결혼식장을 가 볼까요.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예요. 주례자는 하나님이고 식장은 에덴동산이죠. 산새들과 천사들이 축하를 불렀을 것이고 많은 동물들이 축하객으로 왔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을까요. 거기서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는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죄라 할 때 끔찍한 외적인 형태의 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아담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어요. 아담은 회개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자기 아내를 정죄의 방패로 삼았어요. '당신이 함께 하라고 한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치사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자녀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인격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아직 미숙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미숙한 점을 인정해야 해요. 그것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때 그것은 절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서로서로 그것을 보았을 때 감싸주고 위로하고 뒷받침해 주고 격려할 때 비로서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입김을 불어넣어 생기를 주셨는데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하나님께로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계시록 21장 18절에는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둘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부터 영적인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육체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성숙만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전인격적인 성숙이 바로 그 사람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성숙도를 측정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먼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나를 살펴보고 나의 배우자가 아직 거듭나 있지 않을 때 그를 위해서 먼저 해산의 수고를 해



야 하겠어요.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놀랍게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권태기라는 것은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② 둘째 열쇠 - 남편에게 복종

행복한 가정생활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가 복종인데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예요. 우리 여자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에 반발심을 갖죠. 복종할만한 것을 복종해야지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굴종이고 맹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5장...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충만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꼭 방언이다 신유다 하는 것이 성령충만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

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렇게 가장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살펴볼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충만한 결과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여성일지라도, 기도 잘 하고 아는 것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똑똑한 여성일지라도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충만을 맛보지 못해요.

그 둘째 이유는 아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 결과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최초의 여자도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 가장 귀중한 한 부분의 뼈가 회생됨으로 팔미암아 생겨난 거죠.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남편과 아내는 생명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성이라도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만은 지도를 받고 싶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내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없게 되요.

그 세째 이유는 남편이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존귀히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무리 위대한 여성일지라도 그 아내를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이론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권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로 하지 않아도 배

이 아니고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귀히 여기라'는 표현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 첫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하는 분이라도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영적호흡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 이유는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여성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바로 여자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째 증거한 사람도, 선교사를 최초로 대접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부탁한 사람도 뱀피라는 여자였어요. 또한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 여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존재인 이 여성을 남성에게 위탁할 때 귀히 여기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세째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어린 아기를 함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 아기는 생명의 은혜요, 유업인 거예요. 그 유업 말고도 남편이 이론도

네번째 이유는 정상적인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해요. 오늘날 청소년의 범죄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큰 문제로 등장되고 있어요. 저도 이 청소년문제에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환경이 70% 이상이 내 주장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통해서 남편이 위대해지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어쩌면 쓸모없을지도 몰라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섬길 때 그 가정은 바로 세상에서의 궁전이 되는 거예요.

네번째 이유는 정상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해요.

오늘날 청소년의 범죄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큰 문제로 등장되고 있어요. 저도 이 청소년 문제로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환경이 70% 이상이 내 주장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말 잘 듣기를 강요하여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우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③ 세째 열쇠 - 아내를 사랑

이 세번째 열쇠는 남편이 가진 열쇠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 가장 먼저가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사랑에 오래 참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오게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오게 참아야 해요. 저는 이 사랑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남편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스럽기 때문

든 유업의 상은 아내와 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가정을 돌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번째 이유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연약한 그릇은 누구일까요. 남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해요.

이 연약한 그릇에는 두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릇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존재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쁘고 귀한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담뱃재를 담아 놓으면 재떨이가 되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일지라도 꽃을 담아 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함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치는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연약한 그릇의 또 하나의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육자체는 죄가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말씀의 법도대로 사생활하지 않을 때 모든 성행위는 죄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라도 깨어지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여자들은 결혼한 다음에 종종 깨어질 때가 있어요. 집안에서 여자들이 큰 소리를 내거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세속적인 말로 바가지를 긁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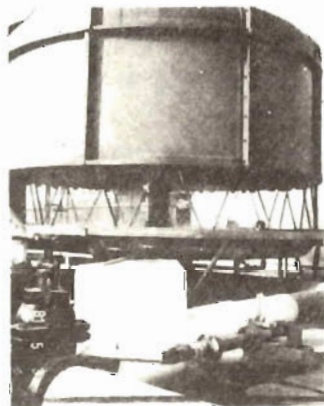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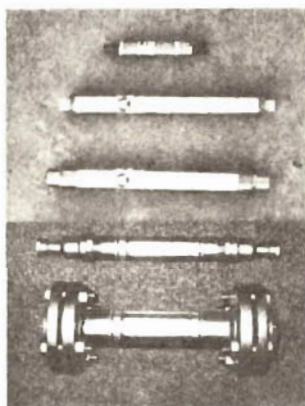
하죠. 이게 바로 더 연약한 그릇이 깨어지는 소리예요. 왜 그릇이 깨어지나요? 주인이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질 때 그 소리도 시끄럽지만 깨지는 그릇은 아프고 그 주인은 더욱 가슴이 아프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

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탁, 이런 명령을 받은 남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일생동안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 교우기업소개 *

Descal-A-Matic 磁氣水處理裝置
WATER CONDITIONER 다에이엠(DAM) MADE IN U.S.A



에너지 浪費의 根源인 SCALE /

● SCALE=問題는 D·A·M·O·I 解決해 드립니다.

* D·A·M=SCALE 생성방지+기존SCALE 제거

● DAM의 驚異的인 性能은 設置使用해 보신 方들에 依해서 立證되고 있습니다.

(製造元: Descal-A-Matic Corp. U.S.A.) 韓國總代理店

서울·鍾路區 仁寺洞119-1 京一빌딩 306号

代表電話: 720-8280

대표 한 형 식 집사



유택엔지니어링
UNITEX ENGINEERING.

바쁜 일 · 중요한 일

이 형 수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왜 바쁜지조차 모르고 동분서주하면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혹자는 바쁜 생활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있는 사람들은 시간 사용에 매우 신경써서 계획성 있게 하느라고 애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때문에 바쁜 것이며 그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앞에 떨어져있는 바쁜 일을 쫓아 다니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없나 생각해

보자. 참 안타까운 일은 바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금방 금방 해 치워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일은 오랜시간을 두고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하나님앞에서 과연 바빠야 할 일과 중요한 일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바쁜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쌓여있을 것이다. 그런 바쁜 일로 인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교제가—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바쁜 일 때문에 2차, 3

차로 밀려나 있지 않는지, 이처럼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교제가 2,3차가 된 사람에게 바쁜 일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복음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하는 점이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아침마다, 또는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는 너무 바빠서 아침에 성경도 읽을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으니 주일에 성경읽을 시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하나님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처럼 바쁜 일의 횡포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앞에서 어떤 일이 바쁘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 중요한 일에 시간사용의 우선순위를 놓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물맷돌 *

피아노연습과 영적상태

『소녀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폴란드의 파데레우스키(Paderewski)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피아노연습을 하루 빼트리면 내 자신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이를 빼트리면 내 기조가 잃게 되고 삼일동안 연습을 안하면 친구들이 눈치를 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연습을 안하면 청중이 그 차이를 깨닫는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생활’을 떠나게 되면 우린 어쩔 수 없이 피아니스트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 : 16-18)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23 : 12)

내 진정 사모하는

(새110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밭의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밭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 어디 그뿐인가?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이 외로울 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신다. 내가 괴로와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돌아보시는 분, 그 분이 바로 나와 당신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예수님,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이 어찌 괴로운 세상, 외로운 세상을 사는 인생이 진정한 친구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이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부러울 것이 없다는 내용의 찬송이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물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밭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이 찬송이야말로 부르면 부를수록 감격에 넘치는 내용의 찬송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용기와 기쁨을 얻었을까?

이 찬송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좋은 직업도 다 버리고 노예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 영국인 푸라이(Charles William Fly, 1837~1882)씨가 작시한 곡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 책 소 개 ◇

김만중 역

성경 핸드북

라이온사 발행 생명의 말씀사 역간

평신도로서 성경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성경의 세계는 접근하기 어려운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의 역사·지리·배경·풍습·언어 등을 번역된 성경 본문에 의존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상당수의 평

신도를, 또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처음에 성경에 접근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성경핸드북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짚막하고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책이다. 구약과 신약의 지리·역사적 배경, 문화 유적등을 생생하게 실물 사진을 통해 보여주며 기독교의 역사적 증거들을 분명히 제시한다. 또한 성경의 세계를 식물·동물의 종류까지 소개해가면서 펼쳐보인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본문 각 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해 놓았다. 한 마디로 이 책 한 권이면 평신도·교역자들이 (전문적이

아닌) 일반적 수준의 간략한,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 권의 성경 핸드북(할레이 및 미어즈)이 소개되었으나, 생명의 말씀사에서 역간한 이 책은 영국의 라이온사에서 발행하였는데, 색도인쇄를 직접 영국 본사에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천연색 사진들이 생생하게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껏 나온 책들에 비해 내용도 아주 짜임새있고 간명하며, 성서사전의 구실을 할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성경연구에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

김 경 신 전도사 (노년부 부지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이 중 윤 목사

(본 교회 협동목사 ·
아시아연합신학원교수)

재물과 가장 상관없는 사람이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려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전리를 따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전 제

크리스찬의 재물관에 있어 먼저 세가지 전제로부터 이 말씀을 출발 하려고 합니다.

1. 인간의 모든 소유는 인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속합니다.

고전 4 : 7에 “베키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우리 자신의 소유물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땅 위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롬 11 : 36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전제에서 우리는 노스틱주의의 사상을 조심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스틱주의는 1, 2 세기에 만연되었던 사상으로 이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람, 영과 물질로 나누어 이원론

을 주장했습니다. 노스틱주의자들은 영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선의 세계이며 물질은 악에 속해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1 : 14의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어- 물질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물질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관을 생각할 때에 물질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스틱적인 물질관과 하나님이 물질보다 우선을 받거나 대접 받는 참모사상이 배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인간은 주어진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 뜻을 따라 관리하며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리를 맡은 소위 청지기에게는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전 4 : 2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충성과 지혜와 근면입니다. 청지기가 미련하여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게으른 죄를 악한 죄와 동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 25 : 14~30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맡은 일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말고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돈(재물)은 가치창조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기술, 그리고 시간들인데 이러한 가치창조의 요소들이 돈에 의해서 만들 수 있고 일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돈을 투자하여,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어 그런 뜻에서 돈은 중요한 것이 되어 인간의 가치창조 중에서 일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2. 돈은 인간척도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들의 가치척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변하게 하는 사람의 척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값이 시간과, 기술과, 재능, 학력에 따라 달리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사람이 받는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 노예시대에 인신매매를 하는 악독한 시대가 있었다고 고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떤 일을 사명감없이 하는 사람은 돈에다 자신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철

학을 가지지 않고, 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으면 편하려고만 하는 것은 돈에 자신을 맡았기 때문에 인신매매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적도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3. 돈은 인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돈을 만드는 반면에 돈은 인간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일, 교육을 받는 일등 모두 돈이 관여되어 중요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획득은 돈을 만들고 분배는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게 되면 돈을 벌게 되지만 내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돈은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획득이 없는 분배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요, 분배없는 획득은 인간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4. 돈은 힘이 있고 인간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은 모든 가능성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몇가지 못할 것도 있지만 (생명문세등) 이 돈에게는 힘이 있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딤편 6:10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돈은 많이 소유한 사람을 대표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회사 장이 말하지요, 그 아래 일하는 사

람은 실제 사장,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의 힘에게 쫓겨 매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돈은 가끔 주인의 포켓에서부터 떠나갈 때에는 굿바이라는 말도 합니다.

5. 돈은 인간 자신의 일부라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여 얻는 댓가가 돈으로 나타납니다. 육체노동자나 정신노동자나 모두 자기의 시간과 기술과 지혜와 정력을 바쳐 얻은 것이 돈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이나 은이 아니고 인간의 한 부분(something human), 인간의 어떤 것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이 사람의 일부분이라 할 때 돈은 소중한 것이고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6. 돈은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킵니다.

중세기와 오늘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의 문화를 소위 대중문화라 합니다. 중세기만 해도 예술가들은 평생에 작품 하나만을 완성하고 죽어도 굉장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모든 예술품들을 돈주면 쉽게 살 수 있고 흡사한 것들을 똑같이 복사도 할 수 있어 다량의 구입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미술품이나 어떤 작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지식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큰 교회는 돈으로 당연히 일등 목사를 모실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성도 생명도 사랑도 명예와 정의, 심지어 생명도 시장판에서 도마도나 쇠고기를 사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사상입니다.

7. 돈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비인간화하기도 하고 비인격화 하기도 합니다.

8.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이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돈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벌어야 하는 것이지만 돈 자체가 우리 모든 것의 가장 우선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9. 돈은 사용방법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불가결하게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돈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의 교훈

10. 돈의 사용을 도리에 맞게 하라고 하였습니다(전 7 : 11~12)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와 생명을 보존하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말, 물질도 필요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먹지 아니하고 떡만으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5.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마 6 : 19).

관리를 맡은 소위 청지기에게는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전 4 : 2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충성과 지혜와 근면입니다. 청지기가 미련하여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게으른 죄를 악한 죄와 동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 25 : 14-30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맡은 일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의 소유를 금한 것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부(富)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잠 30 : 7~9).

부(富)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은 쉬운 말 같으나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편리하게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3. 돈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눅 12 : 19)

어떤 사람은 돈은 악한 것이니 만지지 말라고 하지요. 그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 사람입니다. 돈은 사뭇 훌륭한 것이기도 한데 그를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4.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마 4 :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엘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선을 얼마만큼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선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6.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마 6 : 25)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자기의 허락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염려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고 염려부터 하면 결국은 자신의 손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7.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마 6 : 24)

이 말을 이해하려면 돈의 역사에 대해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역사 이전의 시대, 소위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서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신에

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종교사회가 인간에게 객관적 가치개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그때에는 신에게 제사드릴 재물이 소나 양, 비둘기 같이 물질밖에 없었으니까 이방종교에서 그들이 바치는 물질에 해당하는 가치의 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만지지 못하고 종교적 숭배를 받는 군주만이 금을 사용할 수 있던 군주시대에는 특별히 금에다 표를 했고 철의 장신구를 행복이나 힘으로 여겨 지니고 있던 시대에는 철에다 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기원을 통해 살펴보면 이것은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신을 대신한다고 믿어 제왕의 얼굴을 그려넣기도 하였고 지금도 기독교 신앙의 국가인 미국의 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돈을 사랑하거나 그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그러한 가치로 보아 섬기는 대상으로 될 때에 두 주인을 섬기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8.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딤후 6 : 10)

이 말은 이미 생각했듯이 사랑한다는 개념, 즉 돈을 우선한다는 뜻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9. 탐내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출 20 : 15~17)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욕심입니다.

10. 돈이 인간을 구원 한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눅 12 : 16~21)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여 구원까지도 돈으로 할 수 있

다고 믿는 것,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령을 돈으로 사려 했던 초대교회의 비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 돈의 바른 사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눅16: 1~13)

돈을 바로 사용하면 하늘의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돈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열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눅16:19~31)

13. 율법을 잘 지킨 자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막10: 17~22)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으로만은 부족하니 네가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생의 가치와 세상 것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것을 많이 봅니다. 재산과 지식,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순교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순교자는 제일 불행한 사람일까요?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는데 불우이웃이라고 돈없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품 몇개로 도와줍니다. 돈없는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고 돈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버리시기를 요구하십니다. (눅12: 32~34)

14. 가룟유다를 통하여 교훈하십니다(요12: 4~6)

자기의 열락과 돈을 사랑하여 은 30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유다, 그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 공평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눅3: 11~13)

두벌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외에는 징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0년전

사유재산이 공동생활을 위해 믿음으로 바쳐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잘못 이해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신사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물질을 교회에 바치고 나누는 것이지만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사상으로 출발하여 그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만 해도 경제사정이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어려웠었는데 경제발전이 10배나 된 지금 지구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10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의 부는 지금 몇 사람의 손에 다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6.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눅3:14)

공동생활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저한도의 생활에서 자기들 자신이 만족함과 동시에 공익을 위해서는 먼저 봉사하고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 재물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마25: 31~45)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고는 올바른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

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18. 각자의 직분대로 재산이 분배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행4: 32~35)

여기서 우리와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특별히 교회는 한 몸인 것

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할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되었다는 이 개념속에서 사회원리를 적용해보면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 사유재산이 공동생활을 위해 믿음으로 바쳐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행2 장)

이것을 오늘날 잘못 이해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신사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물질을 교회에 바치고 나누는 것이지만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사상으로 출발하여 그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20. 빈부의 등차를 제거하고 그를 위해 절제생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약5: 4)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오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 마음껏 사용하자

나 사치나 열락으로 사용해 버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한 자요, 그것이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는 시간의 죄인인 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사용방법

1. 물질은 하나님의 위탁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 사용된 원료까지 - 땅, 햇빛, 공기 -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이 원료로 물질을 만들었다고 하여 그것이 만든 이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든 자는 거기다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투자하였고 그것은 사회를 통하여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판단할 때에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로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가치는 하나님과 개인, 사회가 공동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증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것이며 벌 수 있는 지혜와 손, 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근거하에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범죄의 방편이나 하나님께 거역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요일 1 : 16)

3. 영적 삶에 우선권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마 6 : 20)

4. 이웃과 다른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위해 사용한다고 자기 가진 것은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과 다른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공동이익과 자선과 사랑의 표시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이익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되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

니야 교회의 모범적 헌금을 상고하고(고전 8~9 장) 말씀합니다.

결론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는한 상대화시켜야 하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 뿐임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엘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선을 얼마만큼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선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약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곧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6. 낭비가 없이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7. 바치는 자(주는자)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며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바침(창 4 : 2~4), 멜기세벳과 야곱의 십일조(창 14 : 20; 히 7 : 4; 창 28 : 22), 성전의 일을 위해(출 36 : 2~7), 성전건축을 위해(역사 29 : 1~14)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하는 표로(눅 19 : 1~18), 가난한 과부는 염전 두 닢이었으나 남긴 것 없이 바쳤습니다.(막 12 : 41~44) 오늘 우리의 정성이 그런 방법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통용하였으니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행 2 : 44~45) 안디옥 교회처럼 구제에 참여하고(행 11 : 27~30) 마케도

인식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절대적인 것을 절대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한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경제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경제관은 다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 세상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물질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경제관이며 기독교 경영학에서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지난 1월 22일 강변교회에서 실시한 「현대와 크리스찬의 삶」의 강좌중 이종윤목사님의 「크리스찬의 재물관」의 강의록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

이 건 숙

(소설가)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잊어진다.」라는 옛 말이 있다. 지금 우리는 규격시대에 살면서 이 격언의 태두리를 뱀물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때면 닭살이 도돌도돌 돌아나는 것은 알레르기성 체질 탓일까.

너도, 나도, 자신의 처지와 달란트를 무시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상품시대의 가치관은 우리를 괴롭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하는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과도기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도 많다.

호르는 세월 그 누가 막으리오 하며 온몸을 내맡긴 채, 눈을 멀뚱히 뜬 우리들은 확실히 살갓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안방에 극장을 모셔다 놓고 온 가족의 대화를 몽땅 앗아가는 TV(작년 부터는 컬러TV)라는 소리그림상자, 신라시대의 석빙고를 부엌에 옮겨놓고도 으레 옛날, 옛적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냉장고, 또 자질구레한 전기용품들, 게다가 제일 덩치 큰 아파트……, 규격시대의 이런 기이한 것들이 뱀새들의 절규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파트는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놀라와 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풍속도가 될 것이다. 겨울의 매력을 만끽하는 곳이요, 공중목욕탕에서 제외됐다는 매력을 주는 곳이요, 핵가족이 오붓이 서양인들 처럼 살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아파트의 매력은 현대 도시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특기가 되어 버렸다.

앞으로는 마이카야 시대, 컴퓨터시대를 맞아야 하는데 이것을 향한 뱀새들의 몸부림과 한국뱀새들이 외국 황새(사실 뱀새는 한국에서만 사는 새임)의 흉내를 내려고 지르는 아픔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만드는 소리가 될 것이다.

최근에 참으로 우연히 좋은 자매를 만났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파마기 없는 생머리가 처음부터 내게는 매력의 대상이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참신한 것이 그녀의 생활에 젖어 있었기에 모두가 그녀의 집엔 가보고 싶어 안달을 했다.

「참 부자집 여자일 거야.」

「기막힌 효자, 효녀를 가졌을 거야.」

「남편이 큰 기업체의 사장임에 틀림 없어. 그녀의 얼굴에 그렇게 써있어.」

갓가지 억측으로 번뜩이는 눈을 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내심 그녀의 행복한 절규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나 들어선 곳은 형편없이 작은 집이었고, 눈에 띄는 번지르한 가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모두 어안이 병병했다.

하얀 벽을 마주보는 유리창 가엔 농촌의 한 모퉁이를 톡 잔라다 놓은듯 대소쿠리, 김냉쿨, 바구니, 제, 전구가 늘어져 있고 요소요소에 적절히 화분이 놓여 있었다. 꽃이나 잎에 기름기가 흘러 다투어 사랑받고 있다는 뱀새를 흠뻑 뽐냈다. 벽에는 손수 그려붙인 그림들, 손때 낀 시계며, 농, 그리고 취미로 모은다는 사기인형과 사기동물들 같은 소꿉(?)들이 질서있게 나열되어 있었다.

창조로 그득한 작은 공간을 우리는 두 가지 놀라움으로 기웃거렸다. 지독히 가난하구나 하는 놀라움과, 이런 가운데 도사린 규격시대를 벗어난 창조적 개성 즉 넘치는 생기였다. 이 모두를 흉내 내려고 메모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가꿀 수 있었니?」

「내 집이 작은 천국이야. 천국이라면 꽃도 장식품도 사랑이 깃든 것이어야 되.」

「어떻게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니?」

「말 때문이야.」

매일 울며, 가슴앓이를 겪어야 되는 정신박약아의 어머니요, 평범한 공무원의 아내인 그녀는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맡겨준 천사 같은 딸을, 주신대로 힘써 가꿔 천국을 닮은 가정으로 꾸미고 있다는 그녀의 집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90 : 12)」란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규격시대에 주대없이 황새를 따라 허덕이는 뱀새인 나를 부끄러워하며 그녀가 가진 이 지혜를 나누어 갖겠다고 기도를 했다. 어서 돌아가 내 가정을 창조의 힘으로 천국을 닮게 가꾸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겠다고 모두들 들떠 있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그 누가 부인하리오.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②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내용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서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일곱 가지 기도의 내용중 그 첫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들이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그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말은 백성이 임금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역할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의 목적이 악하여져서 생각에 미혹이 들어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애면동산을 쫓겨난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조차 없어지고 실력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자기가 영화로와져기를 목적하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가 칭찬받고, 편안하고, 영광받기를 목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려 해도 욕만 먹게 되고, 편안하려 해도 근심이 생기고, 영광을 누리고 싶는데 안되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해나달, 별, 잘 생긴 산, 심지어 금은 보화에까지 의지하고 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처리해야 할 터인데 인간보다 낮은 것에게 열드려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점점 지위가 내려가 마침내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내려다 보시니 너무 불쌍하여 우리 죄를 대속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죄악을 해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기도나 전도를 할 때에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기도가 깨끗한 기도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함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정해졌다면 우리의 말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말은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쉬이게 되고 그것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 엄청난 거짓말로 바뀌어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한 자랑, 특히 남을 이간시키기 위한 말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축복하는 말들로만 되어질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말만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어있다면 꽃이 피었다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생활되어 나타날 때 열매 맺어지는 성도다운 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점령당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포로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특별한 음식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 자기의 특별부하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뽑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비록 포로된 몸으로 왕 앞에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돌릴 목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절하라고 명령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 그들 앞에 놓여질 사자굴과 풀무불을 두려

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적과 말뿐 아니라 생활로서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 속에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요셉의 충성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나라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리만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되게 해 주시고 내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나를 꺾박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밖에 없는 날이 오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만물이 통일되지 않았으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온 천하만물이 사랑으로 통일됩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뿐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진정한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목적이, 말이, 생활이 충성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아월의 시 -

化 肉

- 이미지 I

어느 개인날 아침
이층 유리창에서
대지와 한몸되는
햇빛을 보았다
새·로·돈·은 나뭇잎이
원-종-일 경련하고
그 경련이 그친 자, 리, 에,
불거나 푸른 열매가 익었다
뭉싣하고 매끄러운 유방이었다
인류가 먹고 남을
유방이었다

高 靜 熙

(시 인)



시작(詩作)노트/언제부턴가 나는 살아 있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化肉을 포착하고 싶었다. 관념으로써가 아니라 생명현장의 목격자이기를 원했다. 그런 작년 봄, 직장 이층 유리창에서 동비를 내려다 보고 있을 때였다. 복숭아·살구·감꽃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햇빛이 그 위로 파스히 내리 쏘고 대지는 경건하게 광을 발했다. 나는 그것이 우주의 어지러운 잉태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미 단물 가득한 과일 가계를 만났다. 그것은 영으로 가는 육의 신선한 첫줄이었다.

1. 교회의 변천사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견해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요, 다른 하나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라고 한다.

물론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

관계있는 교회라야 참 교회이다.

그리고 족장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창12:8; 13:18),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다. (창 28:10~22 참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회막으로 교회가 나

교부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성도의 교제”(Communion Sanctorum)로 보았다. 이때부터 교회안에 이단이 침투하게 되므로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군주적 권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정부를 주셨는데 교회는 정부보다 높다는 사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중세기에 와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황이 절대적 군주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세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등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므로 교회는 타락하여 성직을 매도하게 되었다.

개혁시대의 와서는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 ①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과 ②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③성도는 다 제사장이라고 했다.

칼빈주의 교회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보이는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참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다.(마18:19 참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웨스터민스트 신앙 고백에서도 “가전적 전체 교회는 온 세계의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라고 했다.

그러면 교회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그 기원은 멀리 아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셨다. 그것은 제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이 바친 제물은 피와 관계없는 것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피와 관계있는 것이었다. 아벨이 바친 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요1:29)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어린 양의 피와

타났으며(출33:7~9) 이러한 사실을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다. (행7:38) 이러한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성전으로 나타난다. 솔로몬왕이 성전을 건축하였고(왕상8장 참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성전은 훼파되었고 그후부터는 시나고구(Synagogues)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집 장소로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명칭이 두가지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에크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불렸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시나고구란 말로서 “한 곳에 모인다”는 뜻이다. 에크레시아는 EK(out of)와 Kaleo(Call)의 복합어로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렸다는 뜻이다. (마16:18; 롬16:13; 고전16:19; 골4:15) 이와 반면에 시나고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결합된 교회보다 집회장소를 뜻한다. (마4:23; 행13:43; 제2:9; 3:9)

2. 교회의 분류

1) 가전적 교회와 불가전적 교회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다. 교회를 가전적 교회와 불가전적 교회로 맨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은 개혁자 루터였다. 칼빈은 이 문제에 관하여 강조하기를 가전적 교회와 불가전적 교회는 교회의 양상이 아니고 영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의 양면을 말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둘은 여러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전적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모든 교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가전적 교회에는 중생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가전적 교회는 이러한 두 종류의 혼합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교회사를 보면 중생하지 못한 지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 되었고, 그래서 가전교회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칼빈주의에서는 가전교회에서 구원 받고 못 받는 문제는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의 성화운동에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진정한 교회란 말씀 선포, 치리, 성례 거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전적 교회는 중생한 교인들로만 구성된다. 그러나 누가 중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불가전적 교회라 한다. 이들은 한 교파 한 교회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교회, 여러 교파 속에 있다. 그들은 비록 교회와 교파는 다르다 해도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 있다. 가전적 교회에는 교파가 있으나 불가전적 교회안에서는 교파가 있을 수 없다. (골1:13; 뱀전2:5; 엡5:8)

2)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또한 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투적 교회는 지상 교회를 말하고 승리적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 교회는 죄악에 대하여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두움의 세력과 의 싸움이다. 이 어두움의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예수님 자신도 싸우고 계시고 지상의 교회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계19:11; 마16:18; 요15:18) 그러므로 교회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중단할 때는 죄악에 삼키우기 쉽다. 초대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강성했으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후부터 교회는 전투를 중단하고 방종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고 세속과 타협하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다.

승리적 교회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다. 그런데 승리적 교회가 아무런 희생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사를 보면 승리적 교회에 속한 참 성도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고 싸웠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진 것이다. (요16:33) 바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구교는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 온 진정한 교회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간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번 실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마14:29~30; 26:72) 그러므로 베드로 자

그러므로 교회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중단할 때는 죄악에 삼키우기 쉽다. 초대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강성했으나 콘스탄틴대제가 기독교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후부터 교회는 전투를 중단하고 망종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이다.

도 죄와 싸우다가 상처 받은 자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롬7:25; 고후2:4)

3. 신, 구교의 교회관

신교는 성경에 권위를 두는 반면 구교는 교회에 권위를 두고 있다. 이것이 신, 구교의 차이점이다. 구교에서는 교회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황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 틀림없다고 믿는다. 구교가 타락할 때 개혁에 앞장 섰던 인물은 루터와 칼빈이었다. 이렇게 구교의 거짓 교훈에 대하여 항거한 사람들을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 한다. 신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따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셨고 (요5:39; 10:35; 마22:29; 눅24:27) 사도들도 성경에 권위를 두었다 (벧후1:21; 행15:16~18; 롬4:3) 구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의 인간성

신은 반석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이다. (뱀전2:4~6)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독교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다. 그리고 구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으므로 그의 후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교로 인간의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도 또한 잘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일들에 대하여 한 말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권리를 주신다는 말이다. (롬10:14) 또한 교회의 치리권을 맡긴다는 뜻이 있다. 왜냐하면 지상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죄가 돌아올 때는 치리해야 진리를 지킬 수 있다.

구교에서는 교회의 사도성을 강

조한다. 그러나 교회의 사도성이란 조직 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누가 계승하였느냐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가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도들은 이신칭의(以信稱義)를 믿었다. 그러나 구교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보물 상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다. 구교에서는 보물없는 빈 상자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신교에서는 상자 속에 있는 보화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보화 바로 그것이다.

4. 성경적 교회관

그러면 성경적 교회관은 무엇일까?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엡1:22~23; 골1:18)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화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된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다.

2)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딤후2:15)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불신사회에 진리

를 전파해야 하는 동시에 진리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설립 이후 2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는 철학 사상과 이교의 거짓 교훈이 교회 내부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마다 변증가들이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였다. 기독교 2천년 역사를 볼 때 교회는 진리를 전파만 한 것이 아니라 반 기독교 사상으로 부터 진리를 지켜나왔다는 것이다.

3) 교회는 금촛대이다. (계1:20; 민5:14~16; 눅15:8; 사60:2)

교회를 가리켜 금촛대라 하는 것은 촛대의 사명은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 교우기업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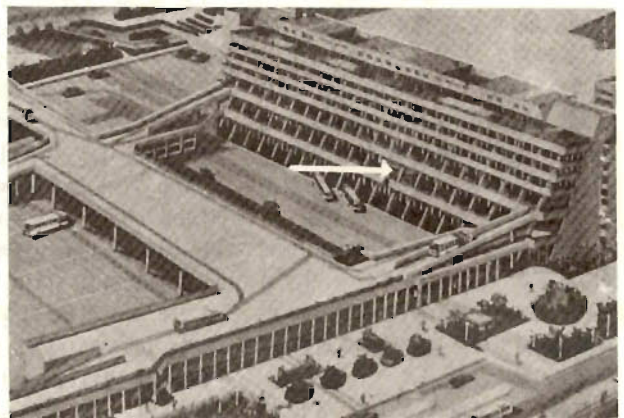
창업 48년의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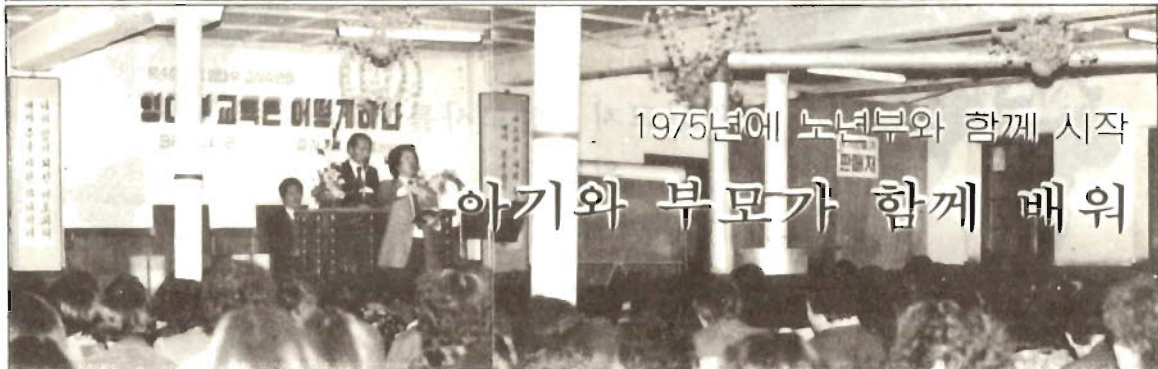
남 문 당

전화 : 599-3776, 593-0192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영아들의 영적성장과 지능개발, 정서교육, 인격형성, 신체발육등의 지도, 교육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함께 교육시켜 훌륭한 신앙인격자로 키울 준비를 하기 위해 영아부가 탄생된 것이 1975년 1월 5일이었다.

초대부장에 김한홀장로, 지도에 정소영전도사, 부장에 조선근집사, 백도선권사와 6명의 교사, 아기 60명 어머니 45명으로 첫번째 개회예배를 드렸다.

영아와 부모가 함께

영아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성경을 직접 말로써 가르치는 것 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교사들이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생활이나 태도, 말동에서 느끼게 하고 무의식중에 경험하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영아부에서는 영아들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부모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75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요일 집회를 실시, 목요일에는 영아교육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영아교육의 문제와 지향성, 방법등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목요일상담」시간으로 바꾸어 가정에서 영아를 키우다가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지도교역자 정소영전도사와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폭발적인 성원과 관심속에서 시작한 영아부는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해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영아부실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1977년 9월에는 2부집회를, 그 1년뒤인 1978년 9월에는 3부집회를, 1981년 7월부터는 4부집회를 드리게끔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매년 전국 영아부교사 수련회

이것은 비단 교회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밖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1979년부터는 매년 전국영아부교사수련회를 실시하여 영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권하며 각 교회에서 영아부를 시작하는데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금년도도 지난 2월 1, 2일 제4회 전국영아부교사수련회를 개최하여 200여명의 영아부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영아교육의 문제를 놓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오전 9, 10, 11, 12시의 4부제로 드리는 영아부집회는 학부모와 영아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분반하여 분반공부를 한다. 이때는 주로 출석점검과 간단한 생활문제와 그림 색칠하기 숙제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 학부모는 「목요일상담」을 운영하고 영아들은 교사와 함께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영아부는 영아들에게 맞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여 책과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하고 집회 시간에 사용하고 있다. 주로 성경



〈지도/
정소영전도사〉



〈부장/
최무길집사〉

구절을 인용하여 작사된 찬송가는 짧고 잘 정리된 성경구절을 인용하였고 곡도 쉽게 만들어 영아들이 쉽

아기찬송가- 만주까지 방송

게 이에 적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내외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아기찬송가는 매주 금요일 8시와 8시 30분에 아세아방송국 (1566KHZ)과 극동방송국 (1188KHZ)의 전파를 타고 전국과 중공, 만주에 까지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장 최무길집사와 부장 김상규·배옥인집사, 지도 정소영전도사를 위시해 40여 선생님이 오늘도 말도 못 알아듣는 영아들과 함께 애쓰고 있다. 이 영아교육의 결과는 먼 후일 이 영아들이 자라나서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데리고 다시 영아부를 찾을때 평가가 되겠지만 크나 큰 확신과 믿음으로 영아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보다 발전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인도네시아 - 서만수 선교사

1981년은 선교지 파송 만 10주년으로 하나님께서도 특별하신 여러 가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불가능하리라고 본 선교사 영주권을 제1호로 허락해 주셨고 (81. 9. 23일자),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님 생활비를 전담하고 선교 사역에도 일부 참여함으로 선교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일상용어로 된 인도네시아어 성경을 출판하여 말레이시아에 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까지 배포하였다. 오지 개척지에서는 침수로 고생하는 주와나지역 교회들이 수리비, 구제품 및 성경배포로 신속히 회복되어가고 특히 강력법과 전과자의 마을인 툴로고모조교회는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빌려 40명이 수세위생 교리공부를 하고 있다. 위노거리 및 위노사리지역교회들도 교회건축 등 순조로이 부흥중에 있다. 한해동안 장년 205명, 어린이 64명이 결신하고 115명이 세례를 받았고 현지교역자 수련회, 합동 새례식도 성료되었고 무엇보다도 남방오지 선교지지의 영구화와 그 사업확대를 위해 할렐루야회관을 새로 건축코자 하는데 총예산소요 예상액 70만달러중 11만달러가 확보되었다. 82년도에도 오지순회비, 사역자 파송, 보조 및 수련회와 성경구입 및 카펫의 제작, 배포등을 내용으로 34,000달러의 예산을 세우고 28개 개척교회의 운영과 사업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 제목

① 할렐루야 회관 신축 건축과 남방오지 선교지지의 영구화 및 사업확대를 위해

② 오지 개척교회 성도 및 사역자를 위해

③ 오지 순회 및 수련회의 안전과 부흥 및 사업확장을 위해

④ 한인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 동참을 위해

● 홍콩 - 홍종만 선교사

병으로 요양중에 계시면서도 홍콩과 연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더욱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화선교협력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만렬 선교사와 염영택 선교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신다.

*기도제목

① 선교사님 병환의 신속한 회복과 강건을 위해

② 한화선교협력회의 발전을 위해

● 애굽 - 이준교 선교사

*기도제목

① 애굽의 어려운 정정속에서 선교사님 가족의 안전과 건강.

② 애굽 선교의 발전과 성공.

● 서독 - 육호기 선교사

비스바덴, 뷔츠부르크, 하나우교회에서 성례식,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구역별 찬송가 바르게 부르기 대회, 여전도회 총회, 성탄절, 송구영신

및 신년 예배를 주관하시느라고 바쁘신 가운데 몸져 누우셨다 일어나셨는데 사모님이 또 아프시다.

뷔츠부르크교회에서는 영어 동시통역 해드폰을 설치하여 미국인과 결혼한 가정 및 미국인들이 참석하는데 영어선교 프린트도 배포하시고, 비스바덴교회에서는 예배시 독일어를 동시 통역하여 독일인과 결혼한 가정 및 유학생들이 초청하는 독일인들이 참석하여 은혜받고 있는데 같이 부를 수 있는 한독찬송가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신다. 브뤼셀 한인교회는 교역자가 없어 김창인목사님 설교테이프를 들으며 예배하는데 대사관직원들과 외환은행직원, 유학생들이 주로 참석한다. 주일학교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부교재 부족으로 안타까움 느끼시며 특히 자체 기도원(선교관 및 수양관) 매입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 영육간의 도움이 절실하시다.

*기도제목

①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② 자체 기도원 매입위한 도움.

③ 브뤼셀 한인교회 교역자.

④ 현지인 선교의 길 확대.

● 호주 - 김태현 선교사

선교협력과 발전을 위해 다수의 인사들과 접촉하시는 가운데 선원선교에 수고하고 계신다.

*기도제목

① 목회의 안정과 발전 위해.

② 선원 선교의 열매와 보존.

● 아르헨티나 - 백성룡 선교사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속에서 목회 하시는데 교우들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계시며, 지난 연말엔 미국에 부흥회 인도차 다녀오셨었다. 어업 및 농업이민 세대의 전도와 현지인 선교를 위한 대학생 주축의 선교단을 구성하고 계신다.

* 기도제목

- ① 목회의 안정, 발전과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
- ② 현지인 선교의 길 넓게 열리도록.

● 파라과이 - 김재창 선교사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으로 목회 여건이 악화중에 있는데 선교사님은 지병으로 사모님은 열병으로 고생하신다. 자녀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성수군의 미국 유학이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0km 떨어진 산 베드로 농장에 전대통령께서 남미 이민의 성패가 걸려 있다고 격려해 보내신 4세대가 도착하고 그중에 2세대가 교회에 등록하여 특별기도중에 계신다. 바쁜 목회활동에 목한선교회 일도 보시는 데 특히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시청각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 기도제목

- ① 교회의 안정과 부흥위해.
- ②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 위해.
- ③ 농업이민은 4세대의 성공과 계속적인 이민의 성공.

● 칠레 - 유재일 선교사

*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부흥 발전과 선교사님 가족 위해.
- ② 남미 선교의 개척과 발전을 위해.



(일본의 유병세평신도선교사가 성경강해를 하고 있다)

● 인도 - 엘리아 겔간 선교사

1월중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감 고취에 주력하심.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중현 성도 여러분과 본부의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로 마치 한국에 있는 듯 느껴지셨다며 특히 생선은 어머니와 멀리 계신 누님도 함께 맛있게 나누어 감사하셨다 한다. 금년 2월 20일에는 독실한 성도이신 약혼자 스네할라타양과 약혼장소였던 다질링에서 결혼식 바라며, 3월 첫주에 귀환예정임. 지난해 크리스마스 특집 정부TV방송에서 설교하고, KEF성가대, 관조르목사님, 빈달·비스코학교 가족들이 동참. 특히 세계 선명회에서 1983년에 개최하는 교역자회의 총무가 되셔서 더욱 바빠지셨는데 카키빌 교회역사상 지역간 교류나 교파간 교류는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새 가정과 선교지역 동참을 위해
- ② 복음전도의 기회 확대.
- ③ 세계선명회 교역자회의의 성공적준비를 위해

● 일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호로이즈미교회와 히로미교회에

서 설교담당하시며 이권사님의 역국과 약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며 외래 및 대합실, 교포의 내방시 및 방문 전도에까지 매우 바쁘신 가운데 권사님의 부인성경반에서 열애 많이 나타남. 히로미교회 마기 선교사님과의 교제, 중현 성도님의 이성근목사님설교집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일본인부인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전도하시는 가운데 권여사가 헌기증으로 출도했을 때 기도회 회생하고 안수기도로 석신생부인, 일본인 부인등 병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림, 입원중 환자위한 기도도 응답받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다.

*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과 인도하심.
- ② 교포 및 일본인 선교의 문 넓혀주심.

● 서독 - 박용삼 평신도선교사

논문 제출후 선교와 언어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며 유학생 및 현지인 가정전도를 하신다.

* 기도제목

- ① 논문의 통과와 선교지역 준비
- ② 생활 및 공부에 어려움 없도록



1월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 25)”

새교우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상선1구역 김영임
우이구역 유영숙
미아4구역 이해경
보문구역 박혜숙
길음2구역 정지화
상계2구역 이명화
미아2구역 현남희
제기구역 이옥자
상선2구역 조상일
장위2구역 신종길
상계2구역 김소선
월계구역 한옥재
광희2구역 신대균
정능1구역 김성옥
미아2구역 최환숙
도봉3구역 변보아
반동구역 이덕성
종암2구역 임소영
이태원1구역 현영진
돈암구역 권영자
동소문1구역 김덕수

● 2 지구

구의3구역 안태숙
사근구역 김승환
임사4구역 서인자
송정구역 전관수
면목5구역 김성자
면목2구역 백수현
용담2구역 최정화
문촌13구역 황선구
망우1구역 조연이

● 3 지구

성원구역 김덕만
시영2구역 김종호
잠실2구역 오아란
신당1구역 구영서
광희문2구역 김영란
쌍림2구역 진성우
행당1구역 박경해
화양1구역 우성재
쌍림2구역 김중곤

● 4 지구

개나리1구역 이영열
옥수1구역 이순옥
노현4구역 김 윤
선정1구역 김상희
신사2구역 한정현
보광2구역 최은자
보광2구역 김경운
육정2구역 김태순
보광1구역 김동석
삼성구역 최재의

● 5 지구

후암1구역 김성애
후암1구역 이영복
용산3구역 장원동
방배2구역 김동표
봉천2구역 송재근
팔동6구역 김정인
사당1구역 이민정
독산구역 신덕선
후암1구역 황환오

남대문구역 박성우
필동5구역 김민정

화원구역 김연화
화곡3구역 이병권

● 6 지구

북인천구역 장미화
용문구역 김병철
신정구역 김윤환
도화구역 임복돌
이촌구역 정상훈
용문구역 장미화
북아현구역 배진희
진양1구역 김효영
성신구역 변영숙
서강구역 궁정자
서강구역 여정자
화원구역 유정진
인현2구역 장원석
상산구역 권영숙
인현2구역 김진옥
당산구역 김상철
인현1구역 양희순
인현2구역 안백희
진양1구역 한성해
진양2구역 김유미

● 7 지구

구파발구역 김연선
종로구역 김정순
서대문구역 박종진
서대문구역 이병규
창신2구역 박승호
창신3구역 유종찬
창신1구역 김용순
역촌2구역 이태희
창신1구역 이순화
율지1구역 임용원
창신3구역 정영숙
창신2구역 김교준
갈현구역 박홍열
북가좌구역 장명희
응암1구역 이문숙
응암1구역 김영자
중무2구역 이성진
응암1구역 정효중
북부구역 이종천

결 혼

- 김용개군과 오병홍양 7 일
- 신경숙양(김옥순집사 딸) 9 일
- 김선숙양(동선동구역) 16 일
- 성순옥양(노광현장로 양녀) 15 일

별 세

- 신명순씨(역촌1구역 신계온선생 부친) 15 일
- 한영규씨(요곡옥권환 부군) 26 일

교역자 · 장로동정

김창인 · 홍종만목사 - 2 월 15~19
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집
회인도

장정일 · 최봉호 · 오치용 · 조준상
목사 - 아세아 연합신학원
선교학 석사과정 입학

조준상목사 - 2 월 8 일~12 일 강
화도 지역 북한선교회 차
량전도

남성호목사 - 2 월 9 일~12 일 강
원도 영월 용정교회 차량
순회 부흥집회

성주진전도사 - 2 월 25 일 합동신
학원 졸업

이원길전도사 - 총회신학교 졸업
윤용규장로 - 2 월 16 일 칼빈 신
학교 졸업

오태희장로 - 사업차 대만, 일본을
다녀옴

이 민

김명혜권찰(중부1구역) - 도미
권명주집사(남대문구역) - 도미
최영미(미아3구역) - 불란서유학
임춘오(7 지구) - 도미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
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
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
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
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
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이
니다.

총회, 군목주일성수(聖守)

2월 21일 전국교회

총회 군목부(부장 전제영목사)는 2월 세째주일(21일)을 군목주일로 성수했다.

전국 3천 7백여교회가 일제히 지킨 군목주일은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여 국토방위 임무에 충실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목주일에 실시된 헌금은 군복음화 및 일선군목들의 사기진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금년도 목표액은 약 1천 5백만원이다.

찬송가 가사작업 완료

한국 찬송가 공회

한국 찬송가 공회(공동의장 이영수, 박봉배)는 지난 2월 5일 성서공회에서 모인 가사분과 위원회가, 그동안 하나의 통일찬송가 발행에 발맞추어, 가사수정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동 위원회는 그간 새찬송가, 개편찬송가, 합동찬송가 중에서 5백 30여곡을 선정하고 5백 40여 가사를 수정확정했다.

앞으로 통일된 찬송가는 부활절을 전후하여 발행될 예정으로 지금 악보 정사 제목분류등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료 노인아파트 건립

대한YWCA, 60주년 기념사업확정

대한YWCA연합회(회장 손인실)는 지난 2월 4일 제1차 연합위원회를 열고 유료 노인아파트 건립계획을 구체화했다.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YWCA는 기념사업으로, 자료전시회를 비롯하여 영화제작, 기념우표발행등의 8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선교사 2명 파송

총회 선교부 실위(實委)결정

총회 선교부(부장 최동진목사)는 지난 2월 9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브라질 선교사로 강경철씨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한경철씨를 파송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신현교회(정석홍목사)와 장성교회(이영희목사)에서 재성후원을 하게된다.

3. 1절 특별기도회

지도자협 및 보청협(保靑協)서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회장 유호준)는 지난 2월 5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3.1절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30인의 회원이 참여한 동 회의에서는 금년으로 63주년을 맞는 삼일절에 삼일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결의하고, 3월 1일 오후 7시 서울 상동감리교회당에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또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장년협의회(회장: 강준원장로)도 3월 1일 오전 8시 서울 YMCA 강당에 3.1절 나라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2월 15일 월례회에서 결정했다.

기독교 교회협 이념문제협의회의서

이규호 문교장관 「교회와 이데올로기」강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의는 지난 2월 11일부터 서울 영동소재 성결회관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와 이데올로기를 주제로한 이념문제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교회와 이데올로기」란 제목의 강연에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우상이라고」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신앙적인 결단과 이에 따르는 바른생활을 통해서 서로 교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회신학원 개강

기성 목회자 재교육

목회자의 자질향상과 계속교육을 위하여 목회신학원이 지난 15일 개강하여 2주간 집중강의가 진행되었다.

여름과 겨울철 두번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동 목회신학원 총회가 직영하는 목회자 재교육으로, 올해에도 1백 50여명의 목사들이 등록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현장의 문제점들을 발굴하며 그 개선책을 모색했다.

강사는 김희보교수등 11명이였다.



1982년도 1학기

총현성경연구원 개강

1982년도 제 1학기 총현성경연구원이 3월 첫주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별도반을 신설하여 구역성경공부교사, 신임 권사, 집사, 권찰반, 남여교역자반, 주교부장·부감반, 교회직원반 등을 별도반으로 구분하여 신설한

것과 전교인반도 월·화요일에 낮반을 신설한 것이 특색이다.

1학기의 수업기간은 3월 2일 ~ 6월 19일 까지며 성경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유로이 시간을 택해서 공부 할 수 있

게 되어있다.

개강예배는 전교인반은 3월 2일(화) 오후 7시, 별도반은 3월 6일(토) 오후 2시에 드리게 되는데 1학기의 각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 명	교 과 목	강 사	수업시간 및 시간	대 상 자
전 교 인 반	1. 월 요 낮 반	사 도 행 전	조 영 길	3월 8일(월) - 6월 14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11시 40분	전 교 인
	2. 화 요 낮 반	빌립보서	김 경 성	3월 9일(화) - 6월 15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40분	전 교 인
	3. 월 요 밤 반	이 사 야	윤 영 탁	3월 8일(월) - 6월 14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40분	전 교 인
	4. 화 요 밤 반	역 사 서	김 회 보	3월 9일(화) - 6월 15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40분	전 교 인
	5. 수 요 밤 반	마 태 복 음	김 창 인	3월 3일(수) - 6월 16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시 40분	전 교 인
	6. 목 요 밤 반	요 한 복 음	신 성 중	3월 4일(목) - 6월 1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8시 40분	전 교 인
별 도 반	7. 구역교사반	구역공과	김 하 진	3월 7일(일) - 7월 18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구역성경공부교사
	8. 권 사 반	베드로서	김 원 남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2 ~ 3시 40분	82년 신임권사
	9. 남 집 사 반	성 경 개 요	김 창 군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7시 40분	82년 신임집사
	10. 여 집 사 반	성 경 개 요	구 명 신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40분	82년 신임집사
	11. 권 찰 반	갈라디아서	김 연 이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40분	82년 신임권찰
	12. 교 역 자 반	성 경 연 구	김창인외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남여 전 도 사
	13. 부 장 반	성령의열매	문 창 수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7시 40분	주교부장·부감
	14. 직 원 반	성 경 개 요	허 충 욱	3월 5일(금) - 6월 18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10시	교 회 직 원
	15. 펜 엘 반	펜엘공부	조 준 상	3월 6일(토) - 6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7시 40분	전 교 인
	16. 북한선교반	성 경 개 요	조 준 상	3월 7일(일) - 6월 13일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 6시 40분	북한선교회원

제19기

지도자양성부도 개강

성경연구원의 주일학교교사를 위한 지도자양성부 제19기가 오는 3월 7일 개강한다.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까지 모이고 3월 7일에서 11월 28일까지 수업하게 되는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지도자양성부 수료와 함께 총현교회 주일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게 되어 있어 현재 주교 교사중에서도 많지교사는

지도자양성부를 거급적 수료기를 바라고 있다.

19기 지도자양성부의 교과목은 구약개론·신약개론·교회사·기독교교육·기독교윤리·칼빈주의·교수법·전도와 집행·주교행정·실습등이다.

3월 첫 주부터

5 부 예배실시

주일저녁설교 - 이 종 윤 목사

전도위원회에서

군 전도세미나

계속되는 교인수 증가로 교회에서도 오는 3월 첫주일인 7일부터 5부예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배시간을 1시간 10분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매 1부예배에는 신성증복사가, 2~5부예배는 김창인목사가 전담키로 했고 주일저녁예배는 이종윤목사가 전담토록했다. 5부예배가 실시됨에

따라 주일저녁예배 시간을 5시에서 7시로 다시 환원키로 했다.

각 부 예배시간은 1~4부는 종전과 같고 5부예배는 오후 3시 40분에 시작하게 된다. 5부예배의 성가를 대학부 성가대가 담당한다.

따라서 각 지회의 회의는 5부예배가 끝난 후에 저녁예배전까지 마치게 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군전도세미나를 가졌다. 군전도의 효과적인 방안과 지원과 협조를 위해 모인 이날의 세미나는 1부 예배, 2부 세미나, 3부 토의 및 간담등의 시간으로 모였는데 군전도 담당 관계자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총회군목부단장인 해군대령 전동석목사의 「군전도의 중요성」, 육군본부군중감실의 육군중령 문원철목사의 「효과적인 군대전도」, 제3579부대 군중실의 공군소령 김성복목사의 「군전도의 성공사례」가 있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군목과 교역자는 전동석·최용범·김원필·문원철·김성복·박병주·김상옥·정삼지·정삼렬목사와 유효은전도사가 참석했다.

제1회 교역자 성장 세미나

충현교회 교역자의 성장과 또한 충현교회 미래의 청사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교회의 지나온 바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점을 찾기 위한 충현교회 교역자 성장 세미나가 지난 2월 23~2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교회성장과 행정」(박준목사), 「교회성장과 구역운영」

(김선도목사), 「교회성장과 전도」(이호문목사), 「교회성장과 교역자」(박선희목사)의 주제를 놓고 강사와의 토의, 분과토의, 종합토의등으로 진행됐다.

새벽과 저녁의 경건회는 교회내 부목사들이 담당했다.



* 교우기업소개 *

家具綜合販賣代行業

티이크·호마이크 및 나전칠기 제작, 알선

아씨방

이 실 호 집사

연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1583 16/6

447-2072



(전도위원회의 군전도세미나)



□ 토막소식 □

식당 폐지키로

교회는 오는 3월부터 그동안 사 용해 오던 식당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장소가 협소함으로 이에 따 른 화재위험과 식중독위험등의 염 려가 있어 결정하게 된 것이고 식 사가 불가피한 부서는 대용식으로 이를 대체할 계획이다.

청년부 주최

심령부흥회 개최

주일학교 청년부가 개최한 심령 부흥회가 지난 2월 15~18일까지 교회당에서 황성수박사를 강사로 모 시고 모였다.

연일 본당과 별관을 꺾 채운 가 운데 모인 부흥회는 「그리스도의 형 상을 닮자」라는 주제하에 모였는데 이번 부흥회는 청년부 겨울 계절학 교를 전교인 부흥회로 바꾼 것 이다.



(청년부주최의 심령부흥회)

*...어린이새신자부는 3월 7일 당회실에서 설명옥 선생의 연구수업이 있고 21일에는 안석렬 강도사님을 모시고 교사특강을 가진다.

*...영아부는 3월 2,3일 양일간 겨울계절학교(강사:김은숙 전도사)가 열리고 3월 한달을 교사심방의 달로 정했다. 또한 겨울계절학교 기간에는 학부모교육이 같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치부는 3월 한달을 전체 학생 심방의 달로 정하고 14일은 노년부 위로 시간을 준비했다.

*...유년부는 3월 21일 학생심방 결과보고회를 가지고 26일은 당회실에서 교수방법토론회를 가지며 이날 또한 교사철야기도회로 모인다. 28일은 1학기 학습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초등부는 3월 7일 교회부근에서 노방전도를, 14일은 구역장훈련을 실시하며 21일은 연구수업이 있고 26일은 새가정부실에서 교사철 야기도회로 모인다.

*...중등부는 3월 1일 반별친교회를 갖고 21일은 찬송가 경연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28일은 자체교사훈련을 실시하며 먼려회에서 7일 노방전도, 14일은 전도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고등부는 3월 7일 연구수업발표회가 있고 19일은 영아부실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진다. 또한 21일에는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가지고 28일은 자체 사무검열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부는 3월 한달동안 반별자 정예배를 실시하며 5일, 12일, 19일, 26일에는 기도원에서 각 학년 별 수련회를 갖고 특히 17, 18일은 기도원에서 임반장 수련회를 가진다. 7일에는 반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청년부는 3월 한달동안 그룹별 기도회를 가지며 21일은 이승근 목사님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장년새신자 1부는 3월 14일 새신자부실에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년새신자 2부는 3월 21일 수료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며 28일은 학생신앙간증회가 있다.

*...장년부는 3월 21일 학생특강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노년부는 3월 21일 성경암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산업전도교육부는 3월 7일 이승근목사님을 모시고 교사특강을 실시하며 같은 날 오후에 장로님을 모시고 학생특강도 열린다. 또한 21일은 성경암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선교부는 3월 6일 장정일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이주반 교육이 있고 19일은 새성전에서 철야기도회로 모이며 27일은 영여설교대회를 열 계획이다.

*...새가정부는 3월 21일 건강관리에 대한 특강이 있고 26일은 교사기도회를 28일은 학생신앙간증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인사이동 □

1. 예배위원회

① 임명

제일성가대 이영복 테너
제일성가대 김태봉 베이스

② 퇴임

제일성가대 추원식 베이스
제일성가대 오준근 테너
제일성가대 김수경 엘토

2. 교육위원회

① 임명

영아부 이재석(남) 임시교사
영아부 구옥순(여) 임시교사
유년부 백경란(여) 임시교사
초등부 박종국(남) 임시교사

중등부 김연수(여) 임시교사
중등부 신미경(여) 임시교사
중등부 김석향(여) 임시교사
고등부 신경희(여) 임시교사
고등부 정현철(남) 임시교사
고등부 김춘권(남) 임시교사
대학부 정익태(남) 임시교사
장새1부 소정부(남) 정교사
장새1부 조남순(여) 임시교사
노년부 이장하(남) 임시교사
산교부 홍정옥(여) 임시교사

② 퇴임

영아부 김승자(여)
초등부 마동훈(남)
초등부 심정태(남)
초등부 천혜원(여)
초등부 최영미(여)

초등부 이현경(여)
초등부 송연옥(여)
중등부 윤혜옥(여)
중등부 천승훈(남)
중등부 김성숙(여)
청년부 황정숙(여)
청년부 이군자(여)

3. 자산관리위원회

① 임명

위원 박창수

각 종 통 계

1982. 1. 3 (매월 첫 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 배후
- 매 주 수요일 배후 9 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 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일낮	I 부	181	305	총세대수	4,233
		II 부	420	924		
		III 부	431	957		
		IV 부	321	690		
		계	1,353	2,876		
배	주 일	저 녀	227	551	신	남 3,680
		삼 일	687	1,171		
		어 린 이 새 신 자 부	22	16		
		영 아 부	157	116		
		유 치 부	101	111		
주	유 년 부	유 년 부	166	187	급	남 2,057
		초 등 부	192	174		
		중 등 부	160	177		
		고 등 부	122	210		
		대 학 부	60	84		
학	청 년 부	청 년 부	69	98	교	남 548
		장 새 I 부	40	89		
		장 새 II 부	21	61		
		장 년 부	25	254		
		노 년 부	44	124		
교	산 업 교 육 부	산 업 교 육 부	20	65	원입	남 963
		선 교 부	방	학		
		새 가 정 부	18	27		
		합	3,484	6,391		
		계	3,484	6,391		

2월의 행사

* 교 회 *

5일 / 정기당회
7일 / 정기제직회
12일 / 전제철야 기도회

23-27일 / 교역자세미나

* 전도위원회 *

14일 / 남전도회월례회
16일 / 군목세미나
21일 / 여전도회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8일 / 전도위원회월례회

* 교육위원회 *

1-2일 / 전국영아부교사 수련회
1-4일 / 어린이새신자부, 유년부, 초등부제철학교
15-17일 / 대학부 수양회
15-18일 / 청년부 수양회
17-20일 / 선교부수양회

22-24일 / 유치부 제철학교

* 심방위원회 *

14일 / 권사회월례회
21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8일 / 구역권찰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

22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

21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7·21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감사위원 *

7·14·21·28일 / 1982년도 지도감사

* 출판국 *

21일 / 출판국 월례회
28일 / 월간충현 2월호 발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조 현 명

편집위원 /

김 하 진	조 선 군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2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2호

통권 제96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2월 22일 인쇄

1982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전화 / 260-3407 · 3408



편집하고 나서

*...금년 특별기획인 「가정」에 관한 두번째 글은 양은순집사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를 실는다.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좋은 글이라 생각되며 보다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계속해서 청소년, 노인, 가정의 역할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찬의 가치관」의 첫번째로 이종윤박사의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다루었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의 하나인 「재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를 명쾌하게 밝혀 주셨다.

*...특집인 「충현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몇분의 필자사정으로 계획대로 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또한 발행일자가 지켜지지 못한 점도, 깊은 관심과 이해로 돌보아주시기를 새삼 부탁드립니다.

1982년도 총현교회 교역자

목 사



김 창 인
(남 회 장)



김 원 남
(집무위원회위원장·5지구집무)



한 영 절
(기도원지도)



김 하 진
(설가부지도·3지구집무)



이 승 근
(청년부지도·6지구집무)



김 장 근
(노년부지도·2지구집무)



장 정 일
(전도위원회위원장·1지구집무)



남 성 호
(전도위원회 내지분과지도)



조 준 상
(전도위원회 북한선교분과지도)



최 봉 호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



박 동 실
(인명선도 교육부지도)



허 중 국
(대학부지도)



오 치 용
(해외복음선교회 인교부지도)



이 세 열
(7지구집무)



조 영 길
(4지구집무)



윤 형 철
(도비유학)



김 영 휘
(도비유학)

협동목사



김 희 보
(장년부지도)



윤 영 탁
(새가침부지도)



신 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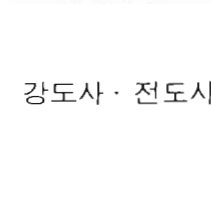
이 중 원



이 성 근
(장년새침자2부지도)



리차드 켈
(협동선교사)



유 국 남
(선교부부지도)



이 안 우
(노년부지도)



안 석 열
(유년부지도)



이 두 란

강도사·전도사



최 수 복
(4 지구심방)



구 명 신
(7 지구심방)



김 경 성
(성경연구원부지도)



김 용 선
(3 지구심방)



정 연 희
(유치부지도)



정 소 영
(영아부지도)



김 순 옥
(1 지구심방)



김 은 숙
(어린이새신자부지도)



김 연 이
(6 지구심방)



현 정 남
(5 지구심방)



정 복 인
(2 지구심방)

교육전도사



김 경 신
(노년부부지도)



김 성 주
(청년부부지도)



김 래
(중동부부지도)



김 익 경
(초동부부지도)



김 장 군
(유년부부지도)



성 주 진
(대학부부지도)



윤 태 군
(고동부부지도)



이 상 환
(선교부부지도)



이 원 길
(중동부부지도)



정 관 호
(산업전도교육부부지도)



정 은 표
(성경연구원지도)



김 정 순
(대학부부지도)



김 정 자
(유치부부지도)



유 희 섭
(고동부부지도)



유 순 화
(산업전도교육부부지도)



이 진 희
(어린이새신자부부지도)



장 영 자
(장년새신자 2 부부지도)



정 금 숙
(장년새신자 1 부부지도)